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0:1-11
2026년 3월 8일 오전 11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

< 주역 도우소서 >

이사야 30 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왕국 유다가 앗수르의 위협을 받던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앗수르의 공격을 3년 동안 막아냈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육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왕하 18:10). 그리고 북왕국을 구성한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왕하 18:11).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신 28:15).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신 28:63-64).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왕하 18:12).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경고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썩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사 31:3).

1.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유다

이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유다는 애굽과 맹약을 맺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네겟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사 30:6). “네겟 짐승들에 관한 경고”는 유다 사신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 위험한 네겟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해안을 따라 가는 해안길이 가깝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신단은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거쳐 갔습니다. 앗수르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신단은 애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사 30:4).

소안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도시로 출애굽 당시에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시 78: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장소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사 30:1-11)

그의 표적들을, 소안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시 78:43-44).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의 현상이 바로 소안이었던 것입니다. 헌데 유다 사신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을 믿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소안에 왔던 것입니다.

사신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앗수르의 침공 때 애굽의 군마와 병거 그리고 기병대의 도움을 받기로 동맹을 체결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사 30:1).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2 절).

사신단은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돕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5 절). 애굽을 몸집만 컸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7 절). 라합은 바다를 혼돈시키는 전설적인 괴물로 혼돈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종종 라합에 비유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흘으셨나이다”(시 89:10).

헌데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사 30: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출 4:22). 그래서 이스라엘을 확대한 애굽을 벌주시고, 이스라엘을 짓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헌데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사 30:9).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 1:2).

2.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

유다 백성들은 마치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하는 패역한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사 30:10).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 이름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삼상 9:9).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솔깃한 말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렘 6:10).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반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아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렘 5:31).

한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입맛에 맞게 거짓 평안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6:14).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렘 23:27). 거짓 예언자들은 꿈 이야기나 주고 받으면서 백성을 속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는 예레미야와 반대로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고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의존하고 악을 행하며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렘 7:8-10).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5-6).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안하고, 살인도 안하며, 간음도 안하고, 거짓 맹세도 안하며, 우상 숭배도 안하는 것입니다.

3. 참된 하나님의 자녀

물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말로 친구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는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지만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빈다면 크게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욥 42:8). 신자가 연약함이나 우매함 때문에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죄를 짓는 대신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는 악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형제를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형제 사랑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 3:17).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궁핍할 때 지갑을 닫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 자매가 궁핍한 것을 볼 때 지갑을 엽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사 30:1-11)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현대 만약 형제라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런 자는 형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형제가 아닙니다.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렘 7:16). 요한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6).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허나 형제라고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가 궁핍할 때 재물로 도와주고, 재물이 없으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착각하여 속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그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사 30:9).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11 절). 그래서 선지자에게 바른 길에서 떠날 것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백성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14 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은 결국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